꽃공양의 진수를 본다

지화장 도홍 스님 지화전 열어
'전주 한지가 지화를 만나다' 展
전북도청 전시실 3월 26일까지

전주한지 지화 49종 4900송이 전시
50여 년 전주한지로 전통방식 이어



지화장 도홍 스님.



도홍 스님의 지화작품 '부처님'과 보산개, 불안을 자세히 꾸미지 않은 이유는 관객들 각자가 부처님의 얼굴을 그려보게 하기 위함이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꽃공양의 진수를 감상할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전라북도영산작법보존회(회장 혜정) 지화장 도홍 스님이 3월17일부터 26일까지 전라북도청 1층 기획전시실에서 지화전 '전주 한지가 지화를 만나다-지화장 도홍 김완섭의 꽃길'을 개최한다. 침향의 향기와 지화만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이번 전시에서는 침향 원목의 전주 한지로 지어낸 지화 49종 4900송이가 전시된다.

사찰꽃이라고도 불리는 지화는 불전을 장엄하고 부처님을 공양하기 위해 쓰였던 우리의 전통문화이다. 염색한 한지로 만들어지는 지화는 모든 장엄에 필요한 꽃의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 시작됐지만 지화 자체가 하나의 장엄물이 된 지 오래다. 불단의 장엄물이자 공양물인 꽃을 만드는 일은 부처님께 귀의하는 수행의 하나이기도 하다.

지화장 도홍 스님은 50년 넘게 전주 한지로 전통 지화의 맥을 이어오고 있으며, 태고종 전북교구는 전라북도무형문화재 제18호 전라북도 영산작법보존회를 통해 범패작법과 함께 지화를 전승해 오고 있다.

육법공양 중 하나인 꽃은 만행화(萬行花)로서, 꽃을 피우기 위해 인고의 세월을 견딘다는 뜻에서 수행을 뜻하며, 장엄과 찬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신라와 고려시대에는 집에 불단을 세우고 작은 병에 지화를 꽂아 두기도 했다고 한다.

우리의 불교지화는 삼국시대 불교가 들어오면서 불전의 헌공화로 시작됐으며, 부처님께 올리는 육법공양 중의 하나가 되었다. 당시의 유물은 전해진 것이 없으나, 고려시대에 지화를 만드는 승려화장이 있었던 사실과 〈관무량수경〉 내용으로 그린 고려불화 '관경십육관변상도'에 있는 꽃을 재현해 본 결과 지화의 기법으로 만든 꽃을 사용한 도상이라는 것이 확인됐다. 그 외 수월관음도, 수덕사벽화, 조선시대 감로탱화, 〈조선고적도보〉에 사진으로 남은 법당 불교지화 장엄 등의 귀중한 사료를 통해 우리 불교전통지화의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도홍 스님은 지화 한 송이를 만들기 위해 산에서 원료를 가져와 49일간 말리고 건조시켜 적절한 온도로 6시간 이상 끓여서 7가지 색상을 만들고 종이에 자연채색을 한다. 또한 꽃(국화꽃) 한 송이를 만들기 위해 10가지 크기 27가지 모양을 27번 망치로 두들겨 꽃 모양을 만든다. 270번을 망치로 두드리는 것이다.

20㎝ 길이의 대나무를 칼로 잘라 젓가락 3분의 1 두께로 만들어 내는데 100번의 칼질을 한다. 천 번의 망치질과 칼질이 있어야 한 송이 지화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3월 17일 열린 개막식에서 도홍 스님은 "불교의 전통문화와 전주한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이번전시를 기획했다"며 "지난 1년 6개월에 걸쳐 하루 3~4시간 잠을 자며 작업했다"고 전시의 의미와 준비 과정을 설명했다. 이날 태고종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영산작법보존회 혜정 스님(범패), 영산 스님(작법), 도홍 스님(지화)에게 태고명인증을 수여했다.

지화명인 도홍 스님(전북교구 종무원 부원장)은 1977년 지화장 청암화상을 은사로 유발득도 후 지화장엄을 공부했으며, 1980년 삼보정사에서 삭발염의 수계했다. 은사 청암 문하에서 전통 방식의 지화 장엄을 전수받아 전통의 한지 지화의 맥을 잇고 있다. 2018년 영산작법 이수 교육 프로그램에서 후계자 양성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2000년 새만금 안전발전 기원 대법회 지화장엄 展, 2006년 새만금 무주고혼 축생령령 위령 고혼 영산 수륙대재 전시, 2015년 김제 용봉사 지화제과 전시, 2016년 부산 이편한세상 공사현장 노동자를 위한 위령제 전시, 2017년 마이산 탑사 지화장엄 전시, 2018년 새만금 잼버리 성공기원 영산수륙재 지화장엄 전시, 2019년 익산 미륵사지 탑 점안식 지화장엄 전시 등 수차례 전시회를 열었으며, 2020년에는 영산작법 이수심사 지화장엄 전시 심사를 맡기도 했다.

불자 피아니스트 임현정 전국투어

3월 27일~6월 27일 총 8회 공연

내면의 소리를 찾기 위해 출가까지 생각했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임현정〈사진〉이 2021년 상반기 국내 투어를 시작한다. 한국인 최초로 빌보드 클래식 종합 차트 1위를 차지했던 임현정은 2016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열린 비로자나국제선원 창건 10주년 음악회에서 특별독주회를 여는 등 불자들에게도 친숙하다. 임현정은 이번 전국투어에서 △3월 27일 아트센터인천 'Power of Spring'을 시작으로 △3.28 성남아트센터 '임현정의 Q&A콘서트' △4.10 대구콘서트하우스 'Power of Spring' △4.11 울산문화예술회관 '임현정의 렉쳐콘서트' △4.17 성산아트홀 '리스트 초절기교 에튜드 전곡' △4.25 군포문화예술회관 'Power of Spring' △6. 5 GS칼텍스예울마루 '리스트 초절기교 에튜드 전곡' △6월 27일 고양아람누리 '리스트 초절기교 에튜드 전곡'까지 총 여덟 번의 공연을 펼친다. 문의 (032)884-0400. 박재완 기자



문화재의 겉과 속, 과학으로 들여다본다

'빛의 과학, ~ 밝히다' 展
국립대구博 3월 16일~6월 13일
금동여래입상 등 69점 전시

국립대구박물관(관장 함순섭)은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민병찬)과 공동으로 3월 16일부터 6월 13일까지 2021년 상반기 특별전 '빛의 과학, 문화재의 비밀을 밝히다'를 개최한다. 2020년 8월 25일부터 2021년 2월 14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렸던 특별전의 대구 순회전시인 이번 전시는 우리 문화재의 보이지 않는 이면을 '빛'과 '보존과학'으로 집중 조명해보는 전시로, 최초의 기획 의도는 반영하되 대구박물관만의 특색을 살려 '빛과 보존과학의 이해'를 바탕으로 '역사적 가치를 담은 중요 문화재 감상'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전시는 눈에 보이는 빛(가시광선)과 눈에 보이지 않는 빛(엑스선, 적외선, 자외선 등)으로 다양한 문화재의 겉과 속을 과학 기술로 풀어본다. 역사적 의미와 예술적 가치를 담은 국보급 문화재를 감상할 수 있다.



금동여래입상 (국보 제182호)

전시 구성은 프롤로그 '빛의 이'영상을 시작으로 과학의 이해, 1부 '보이는 빛과 과학의 이해', 2부 '보이지 않는 빛; 문화재의 비밀을 밝히다', 3부 '빛; 문화재를 진찰하다', 마지막으로 보존과학의 내일을 담은 에필로그로 구성했다.

전시 대상품은 선사시대 청동 거울, 삼국시대 금귀걸이, 고려청자와 조선백자, 보존처리를 통해 공개되는 경복궁 교태전 부벽화와 파상도도 등 궁중회화 3점의 다채로운 문화재 57건 69점이다.

여기에 지난해 대구박물관이 과학적 조사를 실시하여 연구 결과를 보고한 국보 제182호 구미 선산 금동여래입상 등 금동불 3점도 함께 전시한다. 처음으로 대구 나들이를 하는 국보 제61호 청자어룡형 주자, 국보 제91호 기마 인물형 토기, 국보 제95호 청자 투각 칠보무늬 향로 등의 교과서 속 문화재도 만날 수 있다.

이번 '빛의 과학, 문화재의 비밀을 밝히다'는 우리 문화재의 보존과 연구를 위한 박물관의 기능을 이해하고 항구적인 보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박물관 보존과학자의 역할과 임무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의 이면에 담긴 많은 이야기를 직접 보고 느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재완 기자

